



서울대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25호 2013년 1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 snuaasusa@yahoo.com



김근홍(상대 59) 미주 동창회장 신년사



←원쪽 사진은 2013 기사년(癸巳年) 1월 1일 우리 고국 동해안에서 촬영된 일출 모습이다. 마치 거대한 불덩어리가 잔잔한 해수면에서 저솟아 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김근홍(상대 59) 미주 동창회장의 근황이다.

동문 가정과 사업에 무한한 축복을..

지난해 알래스카 크루즈·브레인 네트워크 워크숍 등
성황리 개최, 올 6월 워싱턴DC 제22차 평의원 회의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미주 동문 여러분! 기사년(癸巳年)의 희망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초박빙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프랑스 등 세계적으로 정치적 지도자들이 바뀌고, 미 동부의 초대형 허리케인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많았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서울대인으로 지난 2012년에 가장 주목할만한 일은 우리 서울대학교의 개학원년(開學元年)을 1885년으로, 통합개교(統合開校)의 해를 1946년으로 확정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울대학교는 세계 인류대학의 반열에 손색없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117년의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망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난 반 세기 여 동안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의 존엄과 연속성을 '초대의 여성 대통령'의 탄생으로 응징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본 미주 동창회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인 2012년의 Alaska Cruise와 Brain Network Workshop을 통해서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보았습니다. 각 지역과 연령, 세대를 총 망라한 참여를 통해, 우리의 지성이 더욱 빛났고,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대화와 웃음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고 활기차게 하였습니.

이제 서울대 미주 동창회는 지난 20여년간을 통해 동창회보 225호를 발행하는 대업을 달성하였습니다.

각 지역 동문들의 활동과 소식 관련 아니라 문화·경제·과학·예

술·정치 등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이 전지하고 수리한 필체로 서로의 생각을 이 동창회보 지면을 통해 소통하였습니.

금년에는 제22차 평의원 회의 6월에 Washington D.C.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제13대)을 선출하게 됩니다. 역량 있는 좋은 분이 선출되어 우리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더 고무적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동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참여를 당부드리고, 2013년 한 해에도 여러 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무한한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달의 초대식
남가주 전 동창회장
노명호 등문...15명

동반성원위원장
유창희 박사 강연사
6~7면

‘KBS해의 동포상’ 수상

제미 한민 과학기술자협회(KSEA)
전 회장... 과학기술 부문 선정

제미 동문 과학자 강성권(사진) 박사가 한국방송공사(KBS)에서 수여하는 '제17회 해외동포상'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로 지난 12월 선정됐다.

강성권 박사는 제미 한민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정형민(의전 회장)으로 시상식은 오는 3월에 열린다.

KBS측은 이 상의 강성권 박사 선정과 관련해 "한민족의 근면성과 도전 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보람적인 삶을 통해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자랑스런 위상을 크게 높인 점이 수상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강성권 박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이치리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알림 '차차기 미주동창회장 후보 선출'

미주 동창회 차차기 회장(제13대) 선출을 위한 후보 동문 추천을 받은 결과 ▶윤상대(수의대 52·뉴일먼트스 동창회) 전 회장 ▶손재욱(생물과대 77·필라델피아 동창회) 전 회장이 추천됐습니다. 이 두 후보 등문에 대해 '추천위원회'의 협의 결과 두 동문 모두 지역 동창회장 임인경씨를 비롯한 자격 요건을 갖춰 복수 후보 추천 규정에 따라 두 후보를 오는 6월 워싱턴DC 평의원 회의(3월 참조)에

서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이 두 후보의 차차기 미주 동창회장 출마에 대한 소식을 동원호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추천위원
김호원(지대 52)·김근홍(상대 59)·전 미주동창회장·김민태(수의대 50)·정정호(의대 60)·오인환(문리대 63·차차기 미주 동창회장)·주기복(수의대 68)

추천위원장 송승택(문리 52·미주동창회 전회장)

사 학위를 받았다. 그 뒤 재료공학 분야 유망 연구소인 인로 리서치 센터에서 수석연구원을 지냈으며 1984년부터 IBM 중앙 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동창회비(구독료 포함 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기가 7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2013 기사산 권두시

새벽 빛



최완팔(공대 57)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유미 꼬리 물고 60대 장을 켜 백사(白蛇)
어둠을 뚫고 새 하늘에 솟구친다
거북이 몸을 감은 고구려 현무
남해를 누비던 장보고 충무공 후손
한때를 즐기 꿈결과 세제로 뽀는다

일찍이 앞선 벼룩 볼품 피베트 이어지고
북남미 대학까지 달려나간 혈연
김치·된장·온돌방에 고인을 지어 올려
제치 깊은 끼 범람하는 한류
우리 말 한글문화 오대양에 넘친다

땀지 않고 유유의 비상하는 백사의 윤무
태백 줄기 품에 안은 한반도
한라·지리·금강·백두산까지
새 아침 울음소리 배아리 울린다

백한 가슴 두근거리는 젊음의 기상
대박 줄기 품에 안은 한반도
한라·지리·금강·백두산까지

달 화성에 이르는 철단을 앞서
지구를 달가리는 연약의 열매
태양계 성문 열어 백의민족 깃발 날려라

<bryancho1@cox.net>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법대로 문리대 뒤편 따라
역사 속으로...”



연필

모교 외국인 교수 5년제 3배로 증가

모교에서 강의하는 외국인 교수가 5년 제 3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대 201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모교에 재직 중인 전임 비전임 외국인 교수는 모두 233명으로 5년 전인 2007년 68명의 3.4배에 달했다. 외국인 교수 수는 2006년 95명, 2009년 142명, 2010년 200명, 지난해 242명으로 꾸준히 늘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9명 더 줄었다.

외국인 교수 국적은 미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20명), 영국(15명), 일본(14명), 독일(14명), 캐나다(11명), 프랑스(10명)가 뒤를 이었다. 일본인 교수가 2007년 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영국인 교수도 같은 기간 3명에서 15명으로 급증했다. 강단에선 드물게 모잠비크, 레바논, 불가리아 출신 교수도 있다. 직급별로는 전임교수가 전체의 39.0%,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전임교수는 초빙교수(62명),

시간강사(37명), 전임대우 강의교수(18명) 등이다. 모교 교수직 관계자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과 이천 교육과 학기교수 등 등에 요청해 외국인 교수를 꾸준히 충원했다”고 말했다.

모교는 올해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친트 교수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인 세제릭 수하라에 펠로우십 교수를 임용하는 등 외국인 교수 초빙에 적극적으

15. 이철의 초대석(4)노명호 문운
16-18. 미주지역 동창회 소식
19. <미주지역-피리포드스 신드롬> 지하철에서 'Me Out' 하지 마세요
20. 지름이 7cm인 원의 둘레와 넓이
21. 한국인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그는 정치선진국 상임이 될 수 있을까
22. 북한 경제 개방 위한 대미 협조의 역할

23. 카리스마를 갖고 싶다면 세가지 길을
24. 오해의 땅인 안나 블레나 제2차
25. 고국 동문 동창
26. 동창회비, 각종 후원금 명목
27-29. 동문 소식
30. 동창회 지리 회담/ 편집후기
31-32. 광고



↑유창희 박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유창희 박사(왼쪽에서 두번째)
유창희 박사(왼쪽에서 세번째)
유창희 박사(왼쪽에서 네번째)
유창희 박사(왼쪽에서 다섯번째)



동반성정위원회 유창희 박사 강연

우리 고국 정부 산하 동반성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창희(상대 59) 박사가 LA 한인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지난 1월 LA를 방문했다. 유창희 박사는 1월 3일 한인타운의 한식당 '소향' 행렬 홀에서 LA동포들을 대상으로 2013년 신년 포럼을 개최했다.

유 박사는 이날 “공유가치 조성”과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67면 참조>

유 박사는 “우리의 고국인 한

국의 경제는 그동안 미주·유럽의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르게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그 반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도 커져 왔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

소기업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해 마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함께 해야 하며 이같은 환경에서 모두가 함께 Win-Win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특히 유 박사는 이날 우리 고국의 경제 성장 과정과 배경, 그리고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자료를 임박요원하게 제시해 동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유 박사는 초대 정운찬 위원장에 이어 제2대 위원장이다.***



3. 골다루스의 매를들 / 서울대 이태미
4. 미주 동창회 / 동문수감수해에
5. 이태미 / 일타(올해 필의원 회)
6. 45자의 동창회상 인사 / 비록의 인종차
7. 별 타파고 마틴 루터 킹 목사
8. 7. <백산-동반성정위원회 유창희 박사 강

연사(공유가치 조성) 동반성정
8-10. <관악산-관악산> 일본은 우리에게 무
엇인가? / 학살된 어린 영혼들 / 10년 뒤
을은 미주 / 5년 뒤 다시 돌아오리라 / 그
분들 이름부름고 새 시대정신으로 / 우
이에게 여행하는 밤이라구 / 인류의 위
대기를 만들어
11-14. 미주 동문동창

15. 이철의 초대석(4)노명호 문운
16-18. 미주지역 동창회 소식
19. <미주지역-피리포드스 신드롬> 지하철
에서 'Me Out' 하지 마세요
20. 지름이 7cm인 원의 둘레와 넓이
21. 한국인 유권자들은 현명하다! 그는 정치
선진국 상임이 될 수 있을까
22. 북한 경제 개방 위한 대미 협조의 역할

23. 카리스마를 갖고 싶다면 세가지 길을
24. 오해의 땅인 안나 블레나 제2차
25. 고국 동문 동창
26. 동창회비, 각종 후원금 명목
27-29. 동문 소식
30. 동창회 지리 회담 / 편집후기
31-32. 광고

신년사

“골디우스의 매듭을 끊자!”

이선범 (문리대 59)
US News 주필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니콜을 예에 해어 사 인도의 간지스 강에 미루기 까지 내려 떨어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존중하는 의미로 제기하는 학자들 거의 없는 것 같다.

알렉산더는 기원 전 336년 왕위에 오르자 부왕(父王) 필리포스 2세의 영토확장 유망(有望)에 따라 동방의 대륙 제로 사마로 진격해 나갔다. 그의 군대가 소아시아의 서안(西岸) 루리디아의 코르도유에 이르렀을 때 알렉산더는 이 시(市)의 신전(神廟)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에서 그는 옛날 원자(賢者)로 이름 높았던 골디우스가 남긴 매듭(結)을 보았다.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는 신삭(神諭)이 걸려 있었다.

알렉산더는 복잡하게 얽힌 이 매듭을 푸는 자라다 보았다.

여기까지 해를 잡고 있던 매듭을 그 매듭을 잘라 버렸다. 그리고 외쳤다.

“나는 이제 아시아의 왕이다!”

그는 곧 군사를 물고 이집트에 쳐들어 나갔지만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뒤, 왕국으로 발전한 동해 아르멜리아의 해에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의 대군을 격파한다.

이 때 알렉산더는 다리우스 3세의 전처에 속박됐는데, 그가 제후들 페르시아 왕자의 시체를 때려내 페르시아 왕의 전처가 움직이지 못했다고 고대 그리스의 사학자 투퀴디데스는 당시의 치절했던 전황을 기록하고 있다.

기원 전 330년, 드디어 승왕

의 페르시아 정복을 성취한 알렉산더는 다시 정복을 향해 진격, 인도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원정군이 대하(大河) 인디스 강에 도달했을 때 대왕의 불결한 정복욕에 두려움을 느낀 그의 참모들이 ‘여기가 세계의 끝’이라고 말하자 그는 “아, 이제 나에게는 더 정복할 힘이 없구나”라며 아랑귀였다.

제미 우리 동포들은 이민 100주년을 흥분 뛰여 넘어 대왕의 2013년 시해를 맞아 힘찬 비약을 기원한다.

저 드넓은 창공을 향해 용비(龍飛)의 신삭을 기원하자 우리 미주 동포들은 무엇보다도 알렉산더 대왕의 용기를 골디우스의 매듭을 일도양단(一刀兩斷)한 것처럼 용기에서 나왔다는 그의 교훈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제미 동포의 수가 750만 명에 넘었다. 한편으로 세계 인구는 날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생존하는 무엇보다도 한반도 남과 북이 6.15 평화를 이루면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향해 전진할 발걸음이 멈추지않고 지난 50년의 과거 회귀를 중단하고 화합의 일치를 향해 전진을 계속해 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세계 평화의 대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신기원의 도를 맺게 되기를 기원해 본다.

무엇보다도 제미 우리 동포들은 세계는 우리 민선사회의 사명을 강요해 온 분단체제를 풀기위 한 일도양단과 서로 온 역사의 지평을 향해 전진해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단의 사슬을 끊어 던지버리고 우리의 희망을 속죄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뛰어 넘고, 남북교류와 3대교를 건너 동북 아시아로, 연해주로, 러시아로, 그리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 아시아와 유럽으로 더욱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해 전진하는 발걸음 계속하는 한편, 저 드넓은 창공의 신삭(神諭)을 날아 날보하는 우주적 도약의 꿈을 갖자.

제미 미주 동포들은 태평양을

서울대 아카데미즘과 미주 동창회



최종고 (법대 65)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장

얼마 전 서울대 총동창회의 송년회 및 동창회보 편집회의에 갔다가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의 정수를 받아 두루 넘겨 보게 되었다.

나는 그동안 가끔 미국 보스톤에서 강의하거나 미국 도에서 강연하고 나서 제미 동창 회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작년에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서울의 새바나나’에 갔다가 그곳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미주 동창회보도 몇 차례 읽어보았지만 글을 쓴 일은 아직 없었다.

그런데 이번 223호를 읽어보고 얼마나 다양한 동창회 회원들이 전개되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였다. 그래서 인사 겸 한마디를 적어두려 한다.

지난 번 서울대 동창회 장학회관 ‘베리타스 홀’의 개관식이 참석하여 오인환 차기회장 황동이 전개되고 참여하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였다. 그래서 인사 겸 한마디를 적어두려 한다.

이제는 이희승 박흥수·이병도·유기환·소코필드 등 서울대의 학문적 기초를 놓은 선진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해야 하리라. 인터넷으로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리고 ‘나의 대학원 시절’이라는 회고기를 모아 단편집으로 발간하려고 하는데, 제미 동창회에서도 서울대 대학원 출신들의 회고대사기 바란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식·박사 학위취득 축하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대학과 동창회 사이의 가교적 역할을 하게 되고, 젊은 교수나 학생들에게 역사적 체험을 전하하게 된다.

그때 제미 대에는 1992년에 ‘귀중품서실’을 만들어 2010년에 ‘허사관’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1988년에 하버드 도서관에 있을 때 그곳 Treasure Room에서 편치마당한 것이다.

국내의 방문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모교방문 때 자기 학생시절의 사진들을 보내 주고 기꺼한 모습을 보여서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금년 5월 부터 서울대교과 대학원 동창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1972년에 창립된 대학원 동창회의 초대 회장은 유석진(수대) 박사였고, 김도광(법대)·이창호(생대)·김기현(수대)·하두봉(자연대)·이문환(수대) 교수들이 연이어 회장이었다.

서울대교과 대학원 동창회는 금년이 창립 40주년이라 ‘40년’사 조를 준비하고 있다.

금년도 서울대가 배출한 석·박사 10만 명을 넘어서 각 단과대 동창회보다 훨씬 많은 회원 수를 갖고 있는 최대 동창회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인 집단이다.

금년 9월 26일에는 창립 40주년 기념과 제정실용의 격려차원에서 개최되는 장다대학에서 ‘SNU 대학원의 밤’ 행사를 치렀고, ‘서울대 학문의 개척자’를이란 책자도 발간하였다.

이거에 는 이희승 박흥수·이병도·유기환·소코필드 등 서울대의 학문적 기초를 놓은 선진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해야 하리라. 인터넷으로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리고 ‘나의 대학원 시절’이라는 회고기를 모아 단편집으로 발간하려고 하는데, 제미 동창회에서도 서울대 대학원 출신들의 회고대사기 바란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식·박사 학위취득 축하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려는 신삭(神諭)을 확보한 셈이다.

새해 아침, 우리는 화한 바탕

도 수여하고 있다. 매년 ‘대학원 동창회보’를 발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대학원 동창회는 무엇보다도 서울대학교의 아카데미즘을 집결하고 집중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출세도 없고 인의 교수들이 좋은 학문, 나아가서는 모든 출세이 국제외교인으로 이 문 일대를 확인하는 일이다.

솔직히 그동안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라고 해도 이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고, 동창회도 그다지 유수하지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대신 계속력이 약했다.

대학원 동창회는 이런 면에서 어떻게든 서울대기 배출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것을 서울대 아카데미즘으로 연결시키려고 한다. 법인회와 인문부는 그

경쟁에 주력하기에 바빠 대학원 동창회에서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서울대 캠퍼스에 들어와도 서울대의 역사에 대해 무관하게 말할 수도 없고 중간도 없다. ‘50년사’ ‘90년사’를 편찬하는데는 편찬실도 해체하고 만다. 그래서 대학원 동창회에서는 대대 ‘대학사 포럼’을 개최하여 서울대 역사에 관련된 이런 사건·인물·사료에 대한 역사에 자취를 보존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달에는 47회로 조영규 전총장이 ‘나의 총장서실’ 1987-1991년, 이번 제복으로 총미진전 한 함을 들려주었다.

제미 동창회에서라도 여기에 말로 하고 싶은 문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창회 morn-ingplain@nu.ac.kr.

앞으로 동창동창회 임할 수 회장의 적극적인 서울대 역사에 대한 진정성이다. 새해 시작으로도 손색없는 대외 활동가로서의 정열과 열의와 정열과 자료를 모으고 지체될 수 없다.

이거에 는 이희승 박흥수·이병도·유기환·소코필드 등 서울대의 학문적 기초를 놓은 선진인물들의 생애와 업적을 정리해야 하리라. 인터넷으로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리고 ‘나의 대학원 시절’이라는 회고기를 모아 단편집으로 발간하려고 하는데, 제미 동창회에서도 서울대 대학원 출신들의 회고대사기 바란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식·박사 학위취득 축하해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려는 신삭(神諭)을 확보한 셈이다.

새해 아침, 우리는 화한 바탕

의 캔버스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국립대 동창회로서 조화, 분단에 있는 한민족의 대립구도에서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로 지역차별에서 지역화합으로 가야 할 것이다.

종교가 풍파의 땅을 열고 연합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상호협력으로, 인종혐오에서 상호호의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우주적 정의와 조화의 화합으로 가야 할 것이다.

세 평화 회담을 남달리 기대하고 세 평화의 아원을 갈망하는 기적소리가 지구를 울리고 있다.

우리는 이제 미주 이민 2세기와 제 생활한 지평에 ‘역사’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의 뉴프론티어는 광활한 땅과 더 넓어지는 것이다.***

‘동문제천원’을 동창하지는 않는다. 국립대 동창회와 편지침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사년 신년연설

새해에 눈이 내리네



김태환(법대 46)시민

새해에 눈이 내리네
조국의 산과 들, 마을에
사뿐 사뿐 눈이 내리네
남산, 북악산, 설악산에

내리는 눈은
울분, 기쁨, 첫 꽃송이 피어
선, 경건, 강철한 마음
아름다운 강줄기 만들고

영광, 충성, 호남의 들에
내리는 눈은
천 바퀴 푸는 보리밭에

이불 덮고
종전 돌고
마을에 내리는 눈은
어린이들의 동무
는하람 만들게
마리아의 고향 고향
평평 내리주소서

알려 제22차 미주 동창회 평의회의

2013년 올해의 미주 동창회 제22차 평의회의에 관한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가. 지역 동창회 평의회의 여러 분에서는 제22차 평의회의에 반드시 참가하시어 미주 동창회 변경과 발전을 위한 여러 고정을 제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3년 6월 21일 (수) ~ 22일(목)

▶장소 = The Weston Yostins Corner,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사우대미주 동창회 평의회의

특집 <동반성장위원회 유장익 박사 강연서>



공유기치 조성과 동반성장

고국 정부 산하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 유장익(사진 50) 박사가 LA산공인협회 초청으로 LA를 방문해 1월 3일 강연회를 열었다. 유장익 위원장은 "공유기치 조성과 동반성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다음은 이날 유 위원장의 강연 내용을 편집후기에 정리한 것이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도 아주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의 경제도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뿐 아니라 국내외의 경제 패러다임에 맞선 나가야 할 것이다.

본인은 '공유가치 조성과 동반성장의'를 타이틀로 1. 경제 환경의 변화와 경쟁력 트렌드 2. 공유가치 창출과 동반성장 3. 신성장 정책 방향: Smart Power에 대해 고찰해보고 4.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경제환경의 변화와 신성장 트렌드>

▶전환점을 맞은 한국경제: 한국 경제는 그동안 시대를 따라 적절한 성장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신성장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림 1 참조> 우리의 한국 경제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그 과정에는 Up and Down의 진동과 과정을 거치기 쉽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극도로 보면 전 세계 11-13위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 규모로는 세계 7위에 이르고 있는 정도다. 이같은 경제성장 전략의 특성으로 4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경제 성장 지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의 지형적, 몇몇 정부 주도적 인위적 인접이다. ▶기업경쟁의 변화과정: 1965년 미국과 더불어 경제 발전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원

조율자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 경제 운영체제였다. 그런데 대기업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원조와 자원을 활용해 경쟁력을 발전시켜 기업집단의 초기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0년대 사세 동진조치와 1-2차 Oil Shock로 잠시 주춤했으나 해외 건설 Boom을 타고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고 업종의 전문화를 이뤘다. 이 시기 정부 지원이 커지고 기업집단이 조성됐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두드러지고 문민정부에 의한 경제 추진과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 개방, 금융과 부동산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하지 않은 덕분에 이를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은 양질의 노동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는 수출과 해외자원을 조달했으며 전략 산업은 수출을 육성했다. 한편 국민은 산업 자원을 조성하고 NGO등 사회적 발전 봉사참여 운동을 펼쳤다.

▶글로벌 경쟁 이슈: 지난 2012년 세계 경제는 둔화하고 있는 추세며 글로벌 경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사회적 압력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즉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더욱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월간 조사선 등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하고 신성장 분야 중 공급과 수요의 수직이 악화하는 산업 전반의 Red Ocean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고수준에서 요동치고 있는 신성장 경향과 여러 신성장 신종과 나란할 수 있으며 가우분해 총체적 서 러시아-일본-캐나다 등이 대표함으로써 Green Race의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

G20와 통상 박람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와 경제의 변화가 변화가 오고 있다.

특히 세대간·계층간·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격차가 빠른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돼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세대간·계층간·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 격차에 따른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돼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동반성장 문화확인이 절실해졌다”

실정제가 도입됐다. 기업은 IT

를 첨단산업으로 눈을 돌리

고 있다. B2B가 활발해지고

해의 부가가치가 증가했다.

1997년 IMF의 위기로 극도의 불안정한 시대를 맞았다.

글로벌 경제가 심화해 대규모 구조조정 등 가장 큰 위기였으나

반면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해의 부가가치가 활발해졌다.

2007년 이후는 세계 경제가 위

축되기 시작해 금융 불안정이

가속되고 원자재 상승으로 기업

개혁 정책이 추진됐다. 반면

지식 기반 산업이 부상하고 있

기다 경쟁과 자율경쟁이 확산

되고 있다. 1월 15호 감소

세게 각국의 경제 여건 악화와

대중공중재 대를 수없이 변화

화하는 가운데 국제 공조 제

도가 약화되고 있다.

과거의 경쟁 방식은 과거의

경쟁 방식이 아니었다면 현재

는 저질한 경쟁과 극악한 경쟁

환경, 사회적 요구가 증가

되는 등 다차원적 경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과거의 경쟁 방식은 내부 효율

성 추구와 단순 경쟁으로 대

개 개발과 차별화 전략으로 관

행적 방식을 지속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환경은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신

종류의 급속한 성장에 글로벌

경쟁의 불안정 속에서 가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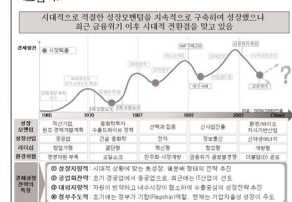
해에 위기 대응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원가 절감 전략을 찾

아 하며 품질 경쟁과 글로벌

<그림 1>



파에 대체해나가기 한다.

▶현대 경영의 트렌드: 지식

경쟁과 기술경쟁, 윤리 경쟁과

신식 경쟁을 조화시켜 나가

야 할 것이다.

지식경쟁은 가치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 및 공유함으로써

가 기업의 핵심자원을 활용

구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기술 경쟁은 기술적 요소로

생산을 향상하기 위한 경쟁

방식이며 높은 경쟁은 급변

화하는 윤리적 가치에 대해

가 두는 경쟁 방식이다.

소 소비도 경쟁은 고객의 개

성과 다차원적 경쟁 욕구 변

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질

경쟁을 위한 경쟁 방식이다.

파의 선순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을 창출하는 것

이다. 과거에는 자본·노

동·기술·지식·정보에 의해

개별 요소 투입형 성장 동력으

로 기업의 이용을 확보했다. <그

림 2 참조> 앞으로는 Society·Hu

manity·Environment·Culture에

따른 자본·노동·기술·지식·정

보로 성장 동력 선순환으로 방

향을 창출해서 글로벌 지향

으로 전환하고 동반성장 문화

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단위

적 CSR중심으로 정경적 공유가

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을 도모하고 다양한

수 경쟁을 전개해야 한다.

▶글로벌 지향 목표의 전환:

급변하는 불확실성과 불균형

의 시대는 글로벌 경쟁과

협상에 능력이 필요하다. 기업

의 가치와 국가, 정치, 경제, 인

간의 총체적 상관관계에서 정

경요소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Reengineering,

Time-based Management, Le

arning Core-competence, Ar

chitecture, Digitalization 등

이 필요하다.

▶동반성장 패러다임 구축:

대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중소기업의 역할에 시인의

역할도 있다. 모두가 Win-Win

을 이루는 것이다.

대기업은 Leader로서 동반

성 문화를 주도하고 공정한

경쟁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중

소와 중소기업 등 협력사 지원

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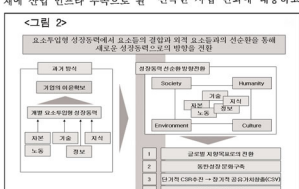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원을 확대하고 CSR을 사회적 지



이러한 요소들이 문화적 경

쟁의 기반이 중요 요소들

▶세계 경제 동향의 모습: 세

계 실질력이 증가하고 주력

산업이 침체돼 있으며 유럽의

경쟁 위기에 국제 유가가 2011

년 이후 배럴 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다. 그러나 최근의 가우분

해는 불안정한 상태

관악세대/Acro정장<전후60년 실험인 자녀의 새해>

그분들 아픔 보듬고 새로다정신으로



양인(공대 77)
ACRU 총장의 회상

아름답다. 남한을 보아도 아프고, 북한을 보아도 아프다. 6.25 직전 북쪽을 떠나고도 이렇게 한 평생을 남한에서 살아온 우리 아버지를 보면 더욱 슬프다. 그 것이 그 고향을 떠나 남녘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실향민에게 살고 있는 기본 격으로 슬픔입니다.

고향과 형제 식구들과 대대해서 가족을 겪은 이들은 죽을 때까지 슬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처럼 내 이웃들과 친구들을 형제와 친척들이 와서 죽었고, 내 이웃들과 친구들은 또 자기 내 형제들과 친척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과연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형제와 친척을 조서로 두고, 두드루고 미련없이 하는 해결책이 없는 동맹... 너무나 무뎠고, 그리고 사치하게 소리를 외쳐들 수 있는 모순을 시 리드와 가슴 속에 밀어 넣어 놓고 살아야 하는 괴로움... 남녘에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죽였고, 그리고 동맹을 맺고 불꽃을 튀기며 아픔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들은, 최소한 최정각과 아픔과 증오를 가슴 속에 묻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장의 묘성이 멈춘 지 60년이 되는 2013년...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그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북한민족이 부모와 미나와 이북한민족이 부모의 기분이 된 모든 노인들의 슬픔을 위로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또 정장으로 가족들을 잃고 옛날이 속에서 다시 살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대대로 남녘에 살

아고 있는 전쟁세대의 슬픔은 또 어찌하겠습니까?

북녘에서도 이분들과 헤어질 운은 가족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별이 남다 남녘에 사는 이들이들을 두고 떠나갈 슬픈 사람들이 있었지요.

전쟁세대들이 미움 속에서도 슬픔과 간지워진 이런 추억과 통일에 대한 열망, 가족사랑의 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최소한 일제시대라는 아픔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었던 삶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쟁의 생각이나, 전외의 발흥을 모든 족을 해치도록 변화하는 신념하에도 실패하는 기본을 놓고, 그 남달고 긴 시간 마음에서 미리 좌식을 찾아 정을 정리하고 있어 이런 지리한 기대 잠잠을 보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때 갑자기 무언가 열광적이라는 느낌이 있어 열광을 불러오니 한 남자의 영성이었다.

국외전 비행기는 대개 복도를 양 옆으로 해서 좌우 창문 쪽의 자들과 가운데 의자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그 창문과 의자 사이에 복도 속이 있었을 아마도 지금 나의 열광을 민방한 부분을 비비대는 실례를 하면서도 두 팔강한 양 반은 무릎 꿇어지는 지 허리를 숙고 의자 위에 놓인 물건과 열의의 제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사고를 고부하라고 하고, 보수가 어떻고 건보가 어떻고, 유신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을 살 우리의 자식 세대들을 위해 노인들은 같이 생각하고 표를 던지라고 주문을 뒀던 것일까?

실행민과 전쟁세대가 동질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식민지 노예였고, 전쟁고아로, 이념의 희생자였었던 그 분들의 삶을 보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이해할지, 무슨 일이 지식이 이렇게도 무성했던 말인가?

수필<비행기만 끝날것에 씀>

'우아하게 여행하는 법' 이라고?



김학천 (치대 73)

실로 오랜만에 한국어로의 여행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비행기는 내게 변화하는 신념하에도 실패하는 기본을 놓고, 그 남달고 긴 시간 마음에서 미리 좌식을 찾아 정을 정리하고 있어 이런 지리한 기대 잠잠을 보며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외전 비행기는 대개 복도를 양 옆으로 해서 좌우 창문 쪽의 자들과 가운데 의자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그 창문과 의자 사이에 복도 속이 있었을 아마도 지금 나의 열광을 민방한 부분을 비비대는 실례를 하면서도 두 팔강한 양 반은 무릎 꿇어지는 지 허리를 숙고 의자 위에 놓인 물건과 열의의 제복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사고를 고부하라고 하고, 보수가 어떻고 건보가 어떻고, 유신이 어떻고, 민주가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의 세상을 살 우리의 자식 세대들을 위해 노인들은 같이 생각하고 표를 던지라고 주문을 뒀던 것일까?

실행민과 전쟁세대가 동질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식민지 노예였고, 전쟁고아로, 이념의 희생자였었던 그 분들의 삶을 보고, 그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이해할지, 무슨 일이 지식이 이렇게도 무성했던 말인가?

내가 몸을 비쳐 한참을 있고서 와서 앉아 끝났지 그 사람이 없는지. 문란한 것이 무뎠던 건지 전혀 모르는 체다.

남에게 실례를 범하고도 아무 사과 한 마디 없이 천덕덕스런 다 못해 변했다 싶었는데 이 때는 유익했다. 조금 있다가 구두를 신고 앞받침이 뚫고 있는 앞의 벽에 발을 꼬아 올려 기대는 광경에 그저 난 말문을 잃었다.

아직 몇몇 늦은 승객들이 들어오는 중이었다. 승무원들이 지나나니 열광을 불러고 불쾌해 하지는 않았지만 그 때의 모습이었다. 그 때의 어떤 사람이기에 이토록 안도하며 그 후안무하 것인가.

주인공이 어찌까지 이복까지 위해 승객들이 다가와 발을 내리고 핸드백 메고 좌석을 앉을 요구까지 고쳐지는 듯 했다. 그 날은 이복을 하고 나니 얼마가 무뎠지 해피로 그는 다시 발을 높이 올려 벽에 걸려있는 의자를 뒤로 밀려놓으려 기댄 누워서는 취위 사파리를 대었다.

역시 예의없는 그대께 큰 소리로 어지 거지 동료들을 불러 가며 떠드는 대화를 들어보니 외의과열의 자식이었다. 아마도 전쟁에서 열린 학회의 다니 오는 길이었나 보다.

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그저 지도승의 언행과 타의 모

범이 배아 하려는 증상은 못말리게 지쳐났다. 지리한 이가 환자를 잃고 전보를 왔다? 환자를 데우는 그의 태도나 수습실의 분위기에서 어떤지 상상해 보았다.

그런데 불쾌한 것은 잠시 잊어 버렸다. 정열로 인해 것은 우회적으로 내비쳐 와서 앞 바닥에 놓은 가방에서 빠진지 패치나온 책 때문이었다.

'우아하게 여행하는 법' 이란 제목의 책이었다. '갑자기' 어떤 절정의 어느 식인종 무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한 선교사가 어느 밀집의 식인종 무리에 가서 불쌍한 자살이나 그들과 같이 지내며 문명을 일깨워 주었다. 그 중에 앞 바닥에 놓은 가방에서 빠진지 패치나온 책 때문이었다.

그 후 선교사는 그들을 떠났다가 얼마 후 다시 방문한 기 회가 있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문명의 정열로 인해 '갑자기' 어떤 절정의 어느 식인종 무리에 가서 불쌍한 자살이나 그들과 같이 지내며 문명을 일깨워 주었다. 그 중에 앞 바닥에 놓은 가방에서 빠진지 패치나온 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으로 정열의 일이 벌어졌던 것은 식인종 무리에 가서 불쌍한 자살이나 그들과 같이 지내며 문명을 일깨워 주었다. 그 중에 앞 바닥에 놓은 가방에서 빠진지 패치나온 책 때문이었다.

이런 한 사파리 뿐일까? 참으로 한 사람의 사파리일까...

단 한 번의 우회로 전쟁세대의 문화를 간헐적으로, 전쟁세대의 집단적 문화를 치유하고 넘어 서서 새 세대를 열 새로운 정신적 기틀을 만들어낸 것은, 전쟁세대 지식인들이 전후세대 새 세대를 위한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 시대를 열었다는 새 정신은, 현재 대한민국이 한 국경 안에서 전쟁세대와 전후세대로 갈 지 나눠져 있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전쟁으로 이루어진 그 사막과도, 보듬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쓸 때, 이것을 이루어 낸 인물인지, 또다시 쓸 때에 열매된 인물인지, 같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세대는 몰라도, 전후세대는 몰라도, 최소한 전쟁세대의 자식으로서 전후세대에 속한 인물들은 더더욱 고심하여 어떤 인물인지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 속에는 전쟁세대와 전후세대의 고통을 깨닫게 될 것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지게 될 것이고, 나라 곳곳에서 새 정신을 열어야 국경안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내건다는 일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를 전쟁대로 바랍시다.

전후 6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실행민의 지식으로 55세가 되며, 아버지의 아픔을 느껴보려는 감회를 적어보았습니다.***

인류 첫 타임 티를 만들며...



이경순(사회대 83)
글로벌 에듀케어 발행인

집에 라임나무가 있다. 별 생각 없이 대로 얼마 전 주변에서 갑자기 라임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지 몰랐다.

내가 아는 한 라임은 칠구름 수 먹을 때, 아이스 커피에 취향이면, 매우 신맛 패턴 쓴

다. 대부분의 라임이 술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레몬이나 라임이나 거기가 거기 같은데... 레몬이 레몬보다 있는게, 라임티를 만들어보자'고 나섰다.

우선 선택 의를 라임을 라임과 물로 깨끗이 씻고, 식초 물을 뜨린물에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물로 씻고, 상처가 난 부분은 제거하고, 딱딱한 부분을 다듬고, 그 다음 마트에 가서 사왔던 라임과 깨끗이 씻은 후 거기에 레몬즙과 함께 슬라이스 해서 Slice로 넣어 두었다. 그러면 라임이 레몬 티를 때와 다른 풍미가 된다.

처음 만드는 분을 위해 힌트를 드리자면, 실험을 좀 많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

히, 절제하는 말고, 그레아 라임의 전한 말이 중화되서 쓴 말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는 그레아 2-3일 둔다. 그 다음에 드셔도 되고, 1주일 뒤에 드셔도 되고, 한달 뒤에 드셔도 되고, 내 건강으로는 적어도 10일 정도는 지나야 삼투할 정도로 라임이 전하이다 해나오기 것이다.

이렇게 해서 라임티를 만들어 먹어봤다. 가슴이 뻘뻘했다. 내게는 한, 인류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주변에서 들이긴 있어 없으나.

진정하해서 마셔봤더니, 레몬과 라임이 섞였다. 물론 레몬의 향이 있긴 했지만.

해서 라임도 이제 티를 만들며 마신다. 여러번 마시니 그 나를 잊어 버렸다. 향긋하고, 얼마 전 초대받은 집에 가서



간 것이 없어서, 작은 김치통을 하나 하나 싹들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데 손이 쓸쓸해서 역시 또 신중.

만드는 사람이야 아주 좋아할 것이다. 푸름, 유가증, 수제과 입자가 아닌가.

지난 어찌 내내 그 강렬했던 켈리모나 컷팅을 받아왔는데는 그 열매. 그 열매로 만든 티가 아닌가. 적당히 있는 게 그냥 바닷가 쉼라.***

동문 동정 (일부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정연모 동문 100세 앞두고 상수연



“물 많이 마시고 가끔씩 탄산”
제이 뉴욕 경복 총동창회 특별한
송년 모임, 후배들, 100세 앞둔
대신에 위한 축하행사 열어

지난 해 12월 15일 제이 뉴욕
경복 총동창회 송년 모임에서 특
별한 순서가 있었다. 이 학과 8
회 졸업생인 정연모(뉴저지 이스
터리포트도 거주) 동문의 100세

~지난 12월 15일 일일 재뉴욕
경복총동창회 송년 모임에서 정
연모(오른쪽) 부인인 정연모와
여사와 함께 100세 기념 케이크
의 축하를 받고 있다.

를 기념하는 상수연(上海:오래
살)을 바라는 뜻으로 ‘백세에 드
리는 장식’이 진행될 것이다.

서울 경복 중, 고교를 졸업한
정연모 동문은 1922년 모교 의전
(醫專)을 졸업한 뒤 일본에서 자
연의학에 대해 공부했다. 이후
고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자원의
학원을 설립하는 등 건강한 생
애를 위한 축하행사 열었다.

정연모 동문은 이날 150여 명의
경복 후배들 박사를 받들며 부인
김영희(87) 여사와 함께 무궁
대에 입장했다. 통상되는 빠짐없이
동창회 모임에 참석하고, 케이크
있는 때마다 후배들에게 건강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정연모 심비
에게 동료분들도 축하했고, ‘연수
무궁’의 의미로 백세수를 함께
마시기도 했다.

100세 생일 케이크의 축하를 받

은 간 정연모 동문은 참석자들에게
“나는 나이를 먹고 있다는 걸
모르겠는데 100세가 다가왔다”
고 웃으며 “장수의 비결을 알려
주세요” 고 묻는 했다. “물 수
있으면 물을 많이 마셨어요. 또
2주 이상 배운 20일까지 동안 마
시며 탄산수를 했습니다. 탄산수
하면 몸의 비활성이 빠집니다.”
정 동문은 이어 “물 수 있으면
갈증이 독서를 하는 것도 정신
을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
다”면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
고 주로 채식은 즐기며, 매일 아
침 10분 이상 맨손체조를 거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914년생인 정 동문의 나이는
2012년 12월 현재 98세다. 올
2월 9일 99세(한국나이 100세)가
되는 정 동문에게 후배들이 미리
상수연을 마련한 것이다. ‘식자
원천으로 보며’ 등 저서도 출간했
다. 지난 2000년 이민 왔다.

부인 김 여사는 “도와드린 게
아무 것도 없다. 주로 채식은 하
고 건강을 챙기신다”면서
“자녀만 탄산수를 오해 하신 건
격정하게도 한다”고 말했다. **
이날 함께 온 딸 정진희씨는
“부모님에게 모두 건강하게 오
래 사시는 것에 감사히 감사하
마”고 이라고 밝혔다.***

채리야 동문 재의선거 대선 투표



“한국인 권리행사 했어요”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지난 해 12월
첫날인 5일 뉴욕 총영사관 투
표소로 늘어난 미녀 채리야가
가 들어가서 이복이 걸었다.

채리야 동문은 올란드에 정국
인인 2003년 한국으로 귀화
한 일련한 한국 국민이다.

채 동문은 “투표는 내가 한
국 시민으로 국가에 보답할 수
있는 작은 기여로 한국국적을
획득한 후 선거 때마다 투표에
참가해왔다”고 말했다.

올란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을 러시아에서 보내고 영국에
서 살았던 채 동문은 1995년
부인과 함께 한국에 갔다.
한국에서 한국문화와 함께 편
재 동문은 서울대 입학 후 다
시 영국으로 돌아간 뒤 이민 대
사 학사학위를 받았다.

채 동문은 “청소원 시절 여러
나라를 돌며 국가나 민족의 의
미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내가 ‘조국’
이라고 느낀 유일한 나라였
다”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국으로 가도 국제
대학원에서 한국학사학 전공
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채 동
문은 2010년 대학원 동문에서
한반도 동문과 결혼했다. 지난해
4월 최정민 DC의 정국로프 기관
인 유스드림을 설립하고 대표
인원인 선배들 미국으로 건너
는 재직을 준비 중이었다.

채 동문은 “한국 유학을 하
고 있는 것이 소원인 한국과 외국
인들에게는 소중한 한 표의 행
사”라며 “정말 많은 것”이라
고 말했다.***

‘베스트 사무총장’ 김득해 목사 은퇴

11년간 노회 설립 동안 성령을 8
만여 교인 171개 기로

‘베스트 사무총장’ ‘오병이’의 기
이론 노회수장’

미국 장로교 동부 한미노회에
서 11년간 사무총장으로 섬긴
김득해 목사를 동료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는 동부 연미노회와 지난 8년
간 교단 173개 노회 중 성령을 8
만여 기로한 데 따른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노회는 마이너
스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해마다
4.1% 10% 정도는 부흥은 늘었다.
2003년 2대 사무총장으로
부임 당시 노회는 22개 교회에
교인이 2천500명 정도였으나 현
재는 38개 교회에 8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한미 노회 중에서 처음으로
자체 사무총장을 구입했다. 38
만 달러가 들어간 사무총장은 김
목사가 설립 교회, 찬양 교
회, 한스대 교회를 중심으로 노
회들의 도움을 이끌어내 마련했
다.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 글로벌
대회를 열어 15만 달러의 노회
별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개
척교회와 기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교단 연금교 이사로 활동
하면서 목사들의 연금이나 건강
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
다.

이 외에도 22개 해외 선교 대
회를 주도했다. 동문 총과 이
같은 이 아니지만 김 목사의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이 큰 밑거
름이 됐다.

모교를 졸업한 그는 장로교 신
학대학에 다시 입학해 신학을 공
부하고 지난 1967년 유학 하 프
린스턴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M.Div.), 켈리빌 대학에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그는 미국계 대형 리서치 회사



↑ 김득해 목사가 11년간 노회
사무총장을 맡아 은퇴했다.

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농
무에 인생 발아 부사장까지 올
랐다.

그러던 그가 어머니의 간절하
고도 끝에 50대 초반에 목사 안
수를 받은 후 노회노는 교회와
해변의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하
기 사무총장을 맡았다.

그런가 하면 노회노는 끝
으로 사무총장에서 정년 퇴임했
다.

김 목사는 이날 “노회원들이
많이 도와줘 이만큼 맡겼을 이
었다”면서 “최초와 따뜻한 바
음과 감사 드린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 노회장 이병두 장로는 “김
목사의 노회노는 노회가 그동안
누누누 맡겼을 이었다”고 평가
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노회는 김 목사에게 공로
장을 전달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노회는 불
론 한인교회와 한인사회가 발전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류재교 교수 ‘자랑스런 MD한인상’

“유재교 박사가 최근 한인 동
포들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모
습이다.”



매릴랜드 한인회 12월 16일 송년
모임서 시상

매릴랜드 한인회(회장 장두서)
가 제정, 수여하는 제3회 ‘자랑
스러운 매릴랜드 한인상’ 수상자
로 매릴랜드 사회학과 류재교 교
수가 선정됐다.



장선희 작가 플라싱서 개인전

‘이디옴으로 플러싱서’ 주제, 디지
탈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개인
인식 시각화로 보여줌

장선희 작가가 지난 해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플러싱의 예

‘자랑스런 매릴랜드 한인상’
심사 위원회(위원장 최광환)는
지난 12월 12일 추천자들을 대
상으로 심사해 류재교 장로 교
수를 제3회 ‘자랑스런 한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류재교 교수는 평생 교육에
몰든 학자 출신으로, 초기 불
티모이 한인 이민사연구 주류사
학과 한인사회화 기고 역할을 담
당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의 존
경을 부각시킨 공로를 크게 인정
받았다.

류 교수는 올 초 44년간 몸담
은 교육계를 떠났다.
류 교수는 특히 1988년 리키
사주 출판과 더불어 시각 특
별보환(부사장급)으로 12년을 근
무하면서 한인 소상공인들의 연
비와 불 만원들의 주류사학 진
출에 장려하는 역할을 톡톡히 한



장 선희 작가는 “창의성에 가
장 영향을 끼치는 아이디어 즉
진실 단계의 통기는 작가가 특

적으로 잘 알라려 있다.

지난 1988-1992년에는 플로리
다 서센스 코디네이터로 특별
게 활동했다.

1994년 로열 메달을 졸업한 류
교수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평
등권 석사와 사회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1998년 미네소타 대학에서 사회학
장사로 교직에 몸 담는 그는 칼
스퍼트 플러싱(캘리포니아),
수상자를 12월 16일(일) 오후 6
시 30분 플러싱에 소재한
해스드 연회장에서 열렸다.***

상사(위원장)도 한 장두서 한인
회장은 “평생 교육계에 헌신
하고, 특히 한인 이민 초창기 매
릴랜드 한인사회에 커다란 족
적을 남긴 분으로 후배들에게 귀
이해 ‘자랑스런 한인상’ 수
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상자는 12월 16일(일) 오후 6
시 30분 플러싱에 소재한
해스드 연회장에서 열렸다.***

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로
다지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연구의 결과를 텍스트가 아닌
시각화를 통해 보여주려 했
다”고 말했다.

장선희 작가는 지난 2002년부터
성인대상에서 미디어 정보
학 박사 과정을 연임했다. 현재
는 성신여자 대학원 디자인 학
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선희 작가는 모교 미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 국민대 대
학원 시각디자인 졸업후 뉴욕
대학(NYU) 미대석사학사 인턴
쉽으로 이력을 쌓았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연세대
인공지능학 협동과정에서 박사학
위를 취득하고 코리안 웹 아
트, 아시아 디지털 아트 디자
인, 소비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컨설팅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푸릇한 고기에 편지를 날려

UN 기자인 송년 만찬서 핵심 선
수로 변신해 푸릇간서 축적 연기

지난 해 12월 19일 뉴욕 유엔
본부의 월드푸드 식량 의제
포럼에서 열린 UN 총리기자
단(UNCA) 주회 송년 만찬회장
의 식당 안 대형 스크린에 반
기문 UN 사무총장 '주인'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싸이(Pay) 때문에 큰일났습
니다"

UN 사무총장실 참모들이 반
총장 기사를 난 신문들 앞에

놓고 앉절부절 못했다.
1면 반 총장 사진 위 '세계
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이
란 제목에서 '가장'이란 단어가

가 '두 번째'로 고쳐진 것.

반 총장은 1회 발원을 위해

'강남 스타일'을 농가할 동
영상을 만들기로 했다.

영화 '황기'의 배경음악이
울라 퍼지면서 반 총장이 후드
티를 입고 혼란하는 모습이 나
온다. 푸릇간에 가서 고기에

편지 서세를 날리는 반 총장의
모습... 작화는 폭발적이었다.

반 총장이 막상 동영상 찍
으려 하자, "나두 나이가 많은

가 아닐까"하고 한 절을 물
어냈다.

그러자 참모들은 로케 필
드서 동영상 틀어준다. 제기는

반 총장보다 한 살 위다.
용기부려한 반 총장이 찍 제

서울대 미주 동창회복

~반기문 UN 사무총장(왼쪽)이
푸릇간에 가서 고기에 편지를
날리는 모습이다. 강력한 반
총장의 편지에 고기가 쏘아지
고 푸릇간 주인이 깜짝 놀라고
있다.

거가 부른 '스타트 미 업
(start me up)롤링 스톤스
곡'을 팀업시키는 동영상
이 완성된다.

그러나 싸이(Pay)를 비롯, 유
명 가수들이 "총장님은 최고나
하시라"며 "비로잡" 비문을
발행하자 반 총장은 크게 실망
한다.

집으로 돌아온 반 총장은 손
녀를 보자 자상하게 증요를 불
려준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
한 필사가 이를 동영상으로 찍
어낸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1억 클릭을 기
록하며 마침내 반 총장이 '세
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자리를 되찾는다.

반 총장은 매년 송년 만찬회
장까지 준비한 동영상에 보이
지 못했다. 이번엔 지난 해 10월
싸이와 만난 반 총장이 "그동안
내가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당신에게
바치기 기쁘다"고 대답한 것 때
라였다.

한편 반 총장은 앞서 기자회
전에서 "북한의 도발적 도발
발사는 지역의 우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도전장을 던진 것"
이라며 "안보리가 적절한 방
식의 결구를 내놓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UC버클리 방문학자 송년모임가져

버클리 대학 방문 학자들의
송년 모임이 지난 12월 14일
저녁 엘세리토의 이흥영 교수
(UC버클리 정치학과) 자택
에서 열려 활기를 띠었다.

이날 모임에는 조운수 교수
(서울대 철학과)를 한국에서

UC버클리와 와 있는 교수와
한국학 센터의 필립 데이비슨
프로그래머 다텔라 등 20여 명
이 모여 음식과 담담을 나누
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앞을 일찍 다스리다가 이흥
영 교수, 여섯번째가 조운수
(서울대 철학과)를 한국에서

이성호 선교사 버지니아서 파송식



"현지 기독교 지도자 양성세
주해할 터"

버지니아 리치몬드 소재 주예
수 교회(매년 목사)가 지난
해 12월 16일 이성호 선교사 파
송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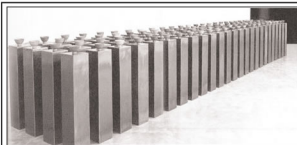
한국교회, 영어권 회당이 모두
참여하는 '함께 하는 선교'의
모임을 보여준 파송식은 주예
수 교회와 미주 국제 기아대회

기교(KAPF)의 협력으로 마련
됐으며 이성호 선교사는 지난
나미로비 소재 보릿길 월드 캐
라지(이종도 회장)에서 현지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
을 하게 된다.

이성호 선교사는 "하나님의
선리와 인도하심을 주예수
교, KAPF와 연결했다"며 "말
은 일에 충성을 다해 섬기는 것
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모로 음대를 졸업하고 펜실베
니아 소재 Biblical Theologi-
cal Seminary에서 공부한 이성
호 선교사는 유대주의와 위정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해왔다.

캐나다의 교회들은 체계적인 신
학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현지 목회자들을 위해 번역 신
학, 기독교의 신앙, 주권적 생
경 등의 교리가 많아 바른
성경과 신학,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로화가 곱춘 화백 대구서 기획전

시·다·선~한글서 추상 표현
"홀릭" 비평전에 사자이는 장
호지 관람객들 사유에 빠져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
중인 원로 화가 곱춘 화백이
고향 대구의 사립미술관에서
선보일 기획전 '홀릭'의 (HOL-
IC) (素) (線) 전시회가 곧
열린 환류 시대에 '한국적 추
상표현의 대가'다운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시로 주
목받고 있다.

지난 해 8월 14일 오픈한 전
시회는 작품이라는 작가의 삶
과 그가 오랜 활동 환경을 통
해 제세상은 세가지 주체 시
다 선이 표현된 4점의 대형 설
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설치작품은 작가의 직접 구운
서리피 토보틀 100알과 이와
조화를 이루는 도르끼리 함께
전지되는 '타원(Tea Bowl)'의
다'를 표현하며 그의 대형 설
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한글서 소나무와 새귀를로
우는 작품 '선/소리'가
선'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회 최고의 하이라이트
는 '시·선' 전시실을 꼭 차도
목 사인의 축을 세운 후 4면을

창호지로 발라 하나의 커다란
방 안으로 한 공간이 외도독
선이란 작품이다.

곽춘 작가가 대구 미술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작으로 미술
관 전시실의 2층 천장 작품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높이

4.6m, 가로 세로 9m 되는 대구
로 보일 작품이다. 이 작품
을 감상하기 위해 주위를 거닐
면 창호지가 바람결에 사각이

는 소리와 공기가 맞물려
'시'가 된 정경은 느끼게 된
다. 작가는 설명한다.

대구 미술관의 큐레이터 변수
정씨는 "이번 전시는 작가 곁
을 감당하기 위해 주위를 거닐
고 정지된 해석과 평가에서 벗
어나 작가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하는 기회가 되며 관람객들

'원로' 사진은 작가의 구운 도기
작전 100점, 1998년도 작품으로
다. 첫전 13월의 SK 9 16.8 cm
및 시선은 13월의 SK 9 16.8 cm
우, 새귀를을 이용해 1995년도
에 제작한 설치작품 '집/소리'

에게 사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하는 '집/소리'가 있다

고 의미 부여한다.
모로 미대 졸업후 1975년 미
국에 와 1981년 LA 사립미술관
장 조진 양교스타펠스에 의해

발탁 신인전을 열며 미국 화단
에 진출한 곱춘 화백은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대구로 설치작품 '집/소리'마
다로 플로라 동양에서 가져가
지 못한 것'을 선보이며 세계
적 주목을 받았으며 불교 동양

철학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화
중에 담기 위해 한국적 재료인
불 종이 도구 등을 이용해

작품을 제작해 오고 있다.
대구 미술관 작품전은 2월 17
일까지 계속된다.***

첼리스트 박정운 동문 뉴욕서 공연



노스쇼어 심포니와 함께 동문
일원대 소재 초등학교에서

첼리스트 박정운 동문이 숙한
노스쇼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수잔 디바)가 지난
해 12월 8일 뉴욕 지역의 동문

일원으로 플레인뷰 소재 스트리트
베드포드 초등학교(33 Bedford
Rd)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은 '리시' 음악가
시몬에 맞는 음악'을 주제로
열렸으며 프로그램은 비발디.

첼리스트 박정운 동문은 뉴욕
의 음악로 구상했다.

지난 2007년 일원대 수석 동
문은 노스스타리크 힐초등학교
1년 졸업으로 졸업했다.

박정운 동문은 지난 1997년 모
교 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뮌
헨의 음악로 구상했다.

박정운 동문은 지난 1997년 모
교 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뮌
헨의 음악로 구상했다.

박정운 동문은 지난 1997년 모
교 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뮌
헨의 음악로 구상했다.

박정운 동문은 지난 1997년 모
교 음대를 졸업한 뒤 독일 뮌
헨의 음악로 구상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라이라이 연회장에서 송년 모임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지난 12월 1일 '라이라이' 연회장에서 84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송년 모임을 가졌다.

오후 6시 라일라이에서 시작해 저녁 만찬 후 정기총회, 미니 음악회, 어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강영배 동문은 시작부터 내내 부드러운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를 감미롭게 장미해 주었다.

민중식 회장(수대 80)은 "올 해

도 여러 동문들이 협조해 아름다운

과 같이 실시하게 돼 감사하고, 내

년에도 모두 건강에 유의하며 같이

만들이 나가는 동창회가 되게 하

자" 고 인사말을 했다.

정학사업은 지금까지는 Chulalongkorn High School에서 2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확장해 연도에 있는 비교적 넉넉지 않은 고교생 5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가자 중 가장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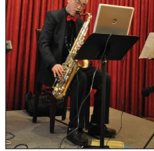
로하신 동문은 서재진 (공대 40) 동문, 최연소자는 서원희 (공대 94) 동문이었다.

미니 음악회는 첼로 독주와 샹악으로 준비됐다. 가코프(첼로, 유지 연 음대 86), 그라운 금강산(샹악, 유미영 음대 87), 고흥의 노래(성악, 심희진 음대 90)는 높은 음악성으로 동문들을 감격시켰다.



캠퍼 순서로 사원희 동문의 아들 서다윗 어린이(5세)가 샹악의 만찬을 주미 복소를 지어내기도 했다. 이어지는 여흥 순사를 위해 특정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중회(공대 80) 동문이 나와 능청스럽고 익살적인 사회로 년회스키즈 게임을 진행해 장내를 폭소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이후에는 모두 무대에 나와 민중식 회장의 리더로 소셜 댄스를 즐겼다. 마지막 유행가 열창 시간에는 강영배 동문의 색소폰으로 가요도 걸들인 가락오케의 반주로 모두가 가수가 되어 무드를 한껏 높여 주었다. 송년회는 밤 10시 15분에 모든 순사를 마치고 작별인사로 헤어졌다. <<정흥대(상대 84)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필라 동문들이 송년회후 단체 촬영. 민중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영배 동문이 색소폰으로 가요도 걸들인 가락오케의 반주로 모두가 가수가 되어 무드를 한껏 높여 주었다. 송년회는 밤 10시 15분에 모든 순사를 마치고 작별인사로 헤어졌다. <<정흥대(상대 84)



남가주 동창회(미대·음대)

김경옥 동문 자택에서 미대 신년의

남가주 미대 동창회(회장 홍신 에 02 회화)가 2013년 새해를 맞아 동문들의 첫 모임을 1월 12일 Pasadena Orange Grove에 소재한 김경옥(61 회화) 동문 자택에서 가졌다.

이날 총 20명의 동문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올해의 행사와 모임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이후 원형배(74 조소·원목 사친) 동문의 기타 연주로 동문들은 모두 흥취진 옛 노래를 즐기며 새해를 맞이했다. <<<

↑ 남가주 미대 동창회 동문들이 신년의 식사를 마친 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뒷줄 왼쪽부터 원형배(74 조소), 홍신 에(Sunny Kim-02 회화), 서

동원(67 회화), 배윤숙(65 음악), 한귀희(68 회화), 최혜영(61 회화), 윤태지(62 회화), 한석만(70 회화), 신덕재(60 음악).

앞줄 왼쪽부터 김경옥(61 회화), 박태원(70 회화), 김구자(61 음악), 김옥경(56 회화), 김순진(50 음악), 이화자(50 조소), 이지수(50 회화) 동문.

JJ그랜드 호텔에서

음대 송년회

남가주 음대 동문회(회장 유재 각·음대 72)가 지난 해 12월 13일 LA에 위치한 JJ 그랜드 호텔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문

남가주 음대 동문들은 이날 다

사다던했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2013년 새해를 맞아 새

로운 행사와 모임 등에 관한 준비 및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50학번부터 04학번까지 40여 동문들이 참석해 동문들간 우애를 다졌다. <<<





워싱턴 DC 동창회

방문 재학생들과 만남의 시간가져

지난 해 12월 13일 오후 7시, 모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워싱턴 DC 방문단(경계개발센터 소장 김태

환)의 초청으로 워싱턴 지역 동문들과 만남시간을 가졌다. 워싱턴 지역 동창회(회장 함은

1) 위 원목 사건부터 시계범함으로 인질교수 김태환 박사(문과)가 워싱턴 동창회 원목산 회담에게 인사배를 전하고 있다. 모교 재학생들이 오인한 차기 비주 동창회집(임은 줄 오른쪽에서 첫번째) 및 워싱턴 동창회 방문단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했다. 모교 재학생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선·유대 77) 정세근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회장을 환영사, 인솔 김태환 교수 인사말, 모교 경력개발 센터 소개, 참석 동문과 학생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재학생들은 각자 궁금한 것들을 묻고 동문들이 자신의 경험과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끝난 후에도 한 동안 동문들과 재

학생간에 대하여 계속됐다. 재학생 대부분은 미국 방문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방 중순기입학, DC 시청 아레나, 환경경, 미 상공회의소, RPA(자유아시아 방송), 힐드뱅크, 의회, 우드로 윌슨 센터,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11개 기관을 공식방문했다.

이들은 '2012 Global Talent Program-Washington D.C'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방문 현장에서 각자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고 축사에서 인연 면담 기회를 제공한 등,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재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해외에서 인턴십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7년 부터 시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호주의 시드니, 홍콩·상가를 등에서 시행했으나, 미국은 뉴욕·서울·필라델피아 이어 세번째다.

이번 참석 동문은 이관후(공대), 강수일(문리대), 박윤수(문리대), 오인환(문리대), 이나래(상대), 이윤주(상대), 장태원(지대), 김용환(지대), 박상근(법대), 권기원(사대), 권기범(의대), 장경태(사대), 안신배(농대), 정종집(상대), 이종삼 동문 부인(장효영), 권영선·김영숙·김진희·신수정·이성원·이우진·최용준·최해진 등이다.

재학생은 유미현(대학원 정치학), 유승현(대학원 국제지역학), 학부생으로 안정주·이다정·최재진·정윤희·장다은·최윤정·성예지·이지영·이지현·신수영 등이다. <<<수석부장 장명태>>



뉴욕 동창회, 관악연대

100여 명이 참여에 송년 파티

뉴욕 동창회 관악연대가 지난 12월 7일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Flushing의 레스토랑에서 연말 파티를 가졌다.

이번 오후 7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된 이 연말 행사와 파티 초반, 뉴욕 동창회의 에드워드 강·진 회장이 참석 격려와 방문해주었다.

2013년 올해에도 여러 선후배님 가정에 더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다.

뉴욕지역 동창회 관악연대는 미주지역에서는 남가주 동창회 관악연대에 이어 두번째로 조성되고 현재 등록 동문수만도 거의 400명에 이르고 있다. <<<

<<<조용범 (자연과학대 01)>>



샌디에고 동창회

Carmel Mt. Ranch CC에서 송년총회

샌디에고 동창회가 지난 해 12월 15일 Carmel Mountain Ranch CC Club House 에서 총회 및 Year End Party를 개최했다.

최고 원로인 이선 박사(사대 45)를 비롯해 7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모인 가운데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김주성(농대 83)동문이 기증한 많은 한방 건강 선물들 비롯한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가지고 동문 가족의 첼로, 발레 공연과 함께 '강남스타일'을 직접 매쉬업은 즐거운 시간도 있었다.

특히 지난 해에 이어 올해는 임원진(문리대 61) 선배를 비롯한 여러 선배들의 Donation

으로 UCSD의 Post-Boc 학생식(공대 91), 김용환(공대 97), 박사 과정의 조종우(공대 92), 문종민(공대 97, 사회대 04), 이강주(공대 98), 엄기문(공대 99), 안희주(경영대 99), 황태연(공대 00)동문에게 총 5천 5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할 수

↑샌디에고 동창회 동문들이 총회 및 송년 파티후 기념촬영했다

있었다.<<아래 사진 참조>>. 총회에서는 올해 성과에 대해 동창회를 이끌고 가신 회장으로서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duin@gmail.com) 동문, 부회장으로 최홍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soo.choi@knobbe.com) 동문을 선임했다. <<<연회장 서정호>>





시카고 동창회

Drury Lane에서 총회 겸 송년회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시카고 동창회가 2012년도 총회 및 연말 파티를 지난 11월 25(일요일) Oakbrook Terrace 에 위치한 Drury Lane 에서 9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총회에서는 김용주 부회장의 사회로 2012년의 사업 활동 및 재무 보고에 이어 동창회 연례 장학사업 행사로 8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각각 1천 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전임 김영호(의대 71) 회장에 이어 한희일 2013년 신임 회장이 추려진 부회장과 감사 등 2013년 회장단과 임원들을 총회에서 소개했다.

2013년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한희일 동문(2012년 수석부회장)은 1969년 모교 풍대를 졸업하고 지난 25년 동안 시카고 북부에 있는 Abbott Lab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Retire 했다.

한희일 차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들간의 친목 우애를 다지고 장학사업과 동문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동창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차차기(2014년) 회장으로는 김호범(상대 73출) 동문을 인선했다.

2부 파티에서는 골프 프로 서우진씨의 사회로 김영 전 회장의 인사로 동문들과 배우

자들로 구성된 댄스 팀의 싸이 맞추춤 보고 모두 참여해 말을 배우는 등 여러 게임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출된 시카고 동창회 2013년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한희일(공대 62) ▶수석부회장= 김호범(상대 69) ▶부회장= 김용주(공대 73)·박숙(의대 64) ▶총무= 이동균(공대 75) ▶재무= 윤효정(사대) ▶기획=인동희(공대 66) ▶Web Master= 김호범 ▶사진= 임원재(의대 59) ▶간사= 김승주(간호대 69)·김윤하(공대 69)

변용규(미국 81)·정승규(공대 60) ▶감사= 이영우(문리대 66)·전원일(농대 62) ▶장학기금 관리= 장윤일(공대 60) ▶"소녀시대 시카고 공연?" 시카고 동창회 여성 동문들이 이날 그룹 '소녀시대' 옷차림을 입고 많은 인기를 모았다.

▶Golden Club= 최김용(문리대 57) ▶그로= 구경희(의대 69)



↑시카고 동창회 신임 회장으로서 선출된 한희일(공대 62) 동문이 취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사치(상대 59)·김정주(문리대 60)·김영호(의대 71)·박영규(농대 57)·이용택(공대 48) <김호범(상대 69) 부회장>



http://www.snuany.com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38 West 32nd Stree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Tel: 212.760.1768, Fax: 212.714.1167

snuany@gmail.com

2013년 새해를 맞아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뉴욕지역 동창회는 동창회 역사 반세기를 앞두고 동문간의 우호 증진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박선섭, 회장 김창수

제34대 동창회 임원진
(July 1, 2012 ~ June 30, 2013)

회장 김창수(의대 64)
역대 회장단 단장 정만식(상대 58)
이사장 박선섭(공대 61)
부이사장 김영현(의대 72)
감사 한경수(문리 88)
감사 김문경(의대 60)
수석부회장 박성현(공대 69)
부회장 윤병하(농대 80)
사무총장 이원재(상대 79)
이사회 간사 허유선(상대 83)
장학위원장 성기호(의대 57)
홍보위원장 권영대(공대 69)
행사위원장 김광희(간호 69)
IT 위원장 김현영(의대 81)
관학위원장 조동범(자연 01)

단과대학 동창회장

간호대 김광희(69)
공과대 권영대(69)
이전구(60)
문리대 손병무(69)
미술대 김광현(57)
법과대 김영배(60)
사범대 조달훈(66)
상과대 박진우(77)
생과대 최선우(70)
수의대 김기택(81)
약학대 이송우(63)
외과대 조광호(73)
의학대 박승현(73)
치과대 조광현(65)
대학원 송용길(69)

동창회 이사회 (이사진 124명)

성명: 한글		영반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원락후원금		동창회비 (구독료)		업소측 광고비		일반광고비	
연\$2000 ☐		2011~2012년 \$75 ☐		1/6월 (3.5" x 2") \$100		동창회 후원금 \$ ☐	
연\$500 ☐		2012~2013년 \$75 ☐		1/6월 (5" x 4.5") \$200		지부 분담금 \$ ☐	
연\$1,000 ☐				1/3년 (10" x 4.5") \$400		종신 이사회 \$ 3,000 ☐	
				1/2년 (10" x 6.7") \$600			
				디자인명함카드 \$500		천원 (10" x 13.5") \$1000	
보내실 곳 :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지불방법 (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310-515-7888> () Check No. ()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USA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99-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복현(상대 84) 301-279-6989 414 Hungerford Dr. #333 Rockville MD. 2085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643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송철(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변요제 / 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rpk #330 Annandale VA 22003
운송/유통/통관/면세점 SeAH Steel America, Inc. 유희/장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576-46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복 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R&N 전 상담에 한해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 율과 많은 초혼. 저혼자 데이트중. 서바이더 등 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68)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910est.com	부동산 / 장계원 BPS Appraisal Company 박병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은행/사금융 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3) 213-389-9000 3700 Wilshire Blvd. #1700 LA. CA 90010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62-3800 (0)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수익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병역 / 지과 이준영 지과(지대 74) (301) 220-2828 (301) 962-9692 6201 Greenbelt Rd Ste 10, College Park MD 20740 86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SK Window 류 원(대학원 74) 213-700-4119 901 E. 31 St. LA. CA 90011 ryuwon2000@sbc.net www.srwindow.net	케이람 LA Supply 전승철(사대 60) (562)-404-1502 13700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박희래 한의원 임희래(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GA 조지아 리태일리/동작 Auto Plaza Group, Inc. 이왕진(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644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황재우(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 254-1871, 495 N. Whisman Rd. Ste. 300 Mt. View CA 94043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교회 라 카나다 한인교회 락고 현(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복현(경정대 84) 301-279-698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IL-IN 사카고 의료/내과/간호/전문/지과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aniel D. Chung DDS, Inc. 정대연(치대 74) (714) 995-5000 8884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식품/음식점 강남척관 Kang Nam Restaurant 323-907-1070 4103 W. Olympic Blvd. LA. CA 90006	공인외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6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익사 / 동물병원 * 이준우 지과 이준우(지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Suite #301 Niles, IL 60714
Seonho Ha Prosthodontics 허성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A. CA 90010 dsshah@yahoo.com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 679-3622 148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IPM Family Wealth Management 이대영(법대 60) (410) 777-8081 ext 158 345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01 tallee@icfint.com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9-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도발)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윤희(성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필(성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학대 64)
(212) 760-1788 (917)647-0606
38 W 32nd Suite #5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Young Tai Choi E.A.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웃으며 살시다”

<성공한 인생>

10대 성공한 아버지들 뒷면 성공
20대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 2차 할 수 있으면 성공
50대 공부 잘하면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본지가 팔려서 주면 성공
90대 전파로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세 아들이 늙으면 성공

<그런데 왜?>

재효와 인수가 만났다.
자네 요리 못하는 여자를 어찌 생각하는가?
재효가 물었다.
“절대 싫어!”

리태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Tai Cho, Attorney at Law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914)762-0432
445 5th Ave., Suite E New York NY 10016
taicho@tai.com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현(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코스모 부동산
이재덕(법대 60) 201-944-4949(O)
201-784-3367(C)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Notthem Realty
김은희(간호대 71)
(718)229-4500, (917)686-3360
45-22 Little Neck PKWY #5 Little Neck
NY 11362, eunicekim RE@gmail.com

<소개팅>

노총각과 노처녀가 어느 소개팅에서 만났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말했다.
“우리 밥 다 먹었으니 어디로 갈까요?”
그녀가 여자가 말했다.
“어머, 남자가 소개팅 나오면서 그 정도 계획은 다 세우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남자가 자신의 일상을 여자 쪽으로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내 계획엔 너 같은 얼굴이 없었거든?”

<진로>

아버지와 고3 아들이 마주 앉았다.
학교 생활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의료/내과/전문업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60)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사학/사업/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빛 꿈 여성 임시쉼터
김문권(음대 82)
P.O. Box 540329 Flushing NY 11354

NV 네바다

의료/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정호(치대 66)
702-394-2828 702-480-7115
5206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1v.com

<편편한 친구>

고교 동창인 맹구와 만수는 10여 년 만에 김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오래간만에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맹구가 만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맹구: 난 결혼해서 애가 셋이야. 너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만수: 좋아. 그런데 어디 살지?
맹구: 여기가 우리 집 주소야. 아파트 주차장이 크니까 거기다 주차시키고 아파트를 돌아 정문으로 가.
그리고는 문을 따로 차서 열리는 엘리베이터로 가서 왼쪽 엘리베이터를 타면 된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
6층에 도착하면 복도를 따라 꼭 끝에서

OR 오레곤

Fi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9-5393
P.O. 7418 Beaverton OR 97007

* 월별 한인교회
최근방(법대 63)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동맹병원

GREGORY K. JOD, D.V.M.
MICHELLE CAMPBELL, V.M.D.
JOHN CANIZO, V.M.D.



GREGORY K. JOD, D.V.M.
MICHELLE CAMPBELL, V.M.D.
JOHN CANIZO, V.M.D.
Phone: (215) 728-0032
Fax: (215) 728-0032
Email: gkjohn@gregoryjod.com

주거복(수화대 68)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9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002



원고들 ...

‘편집후기’

동문들의 지나온 과거를 그리
는 연재계 'My Journey to
America' 시리즈에서 김태환(문
리대 60) 동문은 이어 편찬회
(서울중앙학과 87) 교수와 유
전환기(서울대 법대)가 4월
호 문을 열고 지난 해 10월호부
터는 게재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동문들께서 여기에 마땅
한 글을 아직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동문들께서는
이 시리즈에 글을 써서 앞으로
차신의 자서전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이를 발간 이용해주시
기 바란다. *** **‘편집후기’**

○...글 실어주는데 열
마요? 열마 전(문리대
68) 동문으로부터 고
한 전화를 받았다. “미
주 지역에서 이제까지
살아 오면서 동창회보로
쳐올 받아 보는데 참으
고 강하게 부랑해서 는
몸이 나더라”고 했다.
“이런 동창회보가 있
는 사실을 처음 알았
다”라 했다. 동문
은 이어, “나도 글을 게
재하고 싶는데 얼마
내면 되느냐?”고 물었

다. 이런 말을 처음 들
은 필자로서는 참으로
난감해진 나머지 한참을
그냥 흘려놓기만 했다.
그런데 “웃어만 받고
속하게 말해달라”며 제
고려와 농담조로 “만날
일이와 심만발이 보내
기만 하면 부조진 반
습”이라 했다. 그러자
동문은 “혹시 무슨
함정이라도 있는 것
이냐” 하고 은근히 걱정
이 들기도 했다. 요즘은
박나 하도 험한 세상이
라해서 깨끗하면 극심한
구박을 받기도 오르기 시
단을 통해 알려드리

동문은 정세하는 목소리
로 “동창회보를 만드는
라고 너무 수고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수고마
로 보내주고 싶어서
한다”고 했다. 제발
자를 면하게 된다며 제
이상 말할 것이 없었다.
○...원고제외 되어
대한 이유는 동문들이 글
을 보내오고 나서 “언제
게제지느냐”고 물어오
곤 한다. 또한 “글을 보
려드리고 있으나 종중
이 연락 전파한도 e메일
주소도 없이 보내는 분
이 있어 바로 바로 연

과 같이 원고 투고의 마
감일은 전월 월말이다(1
월호의 경우 12월말)
따라서 그 이후에 보내
오는 원고는 1개월이 지
남았을 때 게재되는 셈이다.
도 하나, 보내온 글이
시원한 편에 게재되는 글이
전월 해당 월에 게재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4.19일 원고인 글을 1월에
보내주셨다면 4월호로
게재되는 바다. 편집주간
은 편집주간 기사에
연재한 기사 끝에
“편집주간 미기준”
이라는 By-line을 달아
두고 있으니 착오가 없
으시기를 바란다. ***

‘편집후기’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 310-719-5422 charlesuh49@gmail.com
자치회장 김상천(문리 66) 714-399-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자치회장 박희태(간호 69) 831-618-2959 acuheere@hotmail.com	
뉴욕	회장 김창수(약대 64) 212-760-1788 changsookincpa@hotmail.com
자치회장 박상원(공대 69) 917-327-2989 sangparkny@g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정선주(간호 68) 781-674-2498 yoonpark6@yahoo.com
자치회장 장수진(음대 76) 978-264-2988 sullivan@comcast.com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 469-235-6196 junlee41@yahoo.com
자치회장 윤수진(음대 77) 972-248-8811	
특기 마운틴스	회장 표한솔(치대 58) 303-6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자치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자치회장	
샌디에고	회장 심상철(공대 81) 858-436-5498 sdunison@gmail.com
자치회장 최홍수(자연 87) 619-552-5273 heungsoo.choi@knobbe.com	
시카고	회장 한일일(공대 62) 312-213-8557 eyul1hahn@gmail.com
자치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cgong.com	
애틀랜타	회장 오원환(문리대) yhoth@atheon.com
자치회장	
앨래스카	회장 류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uon@hotmail.com
자치회장 배석현(공대 58) 907-561-06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 503-317-5625 seokjin@gmail.com
자치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자치회장	
워싱턴DC	회장 함은선(음대 77) 703-969-3006 samilaur12010@gmail.com
자치회장	
워싱턴주	회장 유석진(문리 64) 425-670-9067 spck@rocket.com
자치회장 김무용(공대 64) 253-228-4396 ctzno2@gmail.com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 801-474-1945 you.bae@yahoo.com
자치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 770-449-0000 minparkg@yahoo.com
자치회장 김정호(공대 74) 770-614-0618 hkim@no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68) 512-591-7739 267-902-1077 yjlee11023@yahoo.com
자치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민홍식(수학대 60) 267-577-0502 hungmin438@gmail.com
수석부회장 김경현(공대 68) 484-744-6785 dhk064@gmail.com	
회장 박창익(농대 64) 954-599-3452 changikpark@aol.com	
자치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정신희(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자치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t09nc.rr.com	
하와이	회장 김윤수(수학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자치회장	
하들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 66) 913-268-0228 chungm@yaho.com
부회장 이상진(공대 68) 918-687-1115 918-360-9178 wanunada@gmail.com	
휴스턴	회장 박순희(사대 58) 713-984-2666 taeksoond@yahoo.com
자치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084 hi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 778-322-7732	
회장 조윤희(자연 82) 403-820-8261 delhousted@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진(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윤락(공) · 오준호(사) · 이정택(공) · 이진구(농)

영예회장: 송수영(문)

제11대 회장: 김은중(상)

기획 회장: 오인환(문)

관계유치회 부회장: 노영호(공)

징병부 임원

사무총장: 성주영(상)
총무국장: 박복자(문)
재무국장: 강석현(공)
사업국장: 이종희(농)
선교국장: 이상대(농)
간 사: 김명현(사) · 박경원(농)
기금모금위원장: 이종도(공)
IT개발위원장: 김영민(공대)

회보 임원

발 행 인: 김은중(상)
상임고문: 박석준(상)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지인수(상)
편집주간: 이기준
편집위원: 조종훈(의) · 박양준(문) · 김재원(의) · 나철상(문) · 이종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병영(문) · 김경희(인문)

논설위원

김일환(의) · 김기태(사) · 조종훈(사) · 최홍원(사) · 박순(WA, DC) · 최길원(의) · 이형광(사) · 정홍택(사) · 윤상래(의) · 김창수(NY) · 임승준(SF) · 정석재(의) · 이석구(NY) · 정요진(사)

의치위원회

위원장: 서준민(공 · PA)
원 원: 한재원(의 · IL) · 이민영(법 · TX) · 윤상재(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선용봉(농 · NY) · 함은선(문 · WA)

· 사진 · 취재 · 기사작성 · 편집 · 디자인은 이기준 편집주간 snuausaik@gmail.com
· 인쇄 · Chana Times Printing, INC.
445 N. 4th St., San Gabriel, CA. 91776
Tel 626-308-2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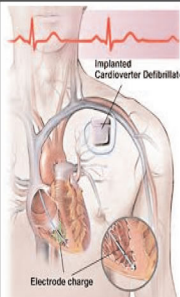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대표 이승훈(상대 74)

www.jaysofnor.com



“서울대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김일영 심장내과
김일영 (의대 65)
323-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라이머리 브랜드 : 규모와 인명, 서비스까지 고객에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해외망 커리어에너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에너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유로만력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한국 회원공개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위한 공구, 2인 6인방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NY 201-242-0505



“2013년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Happy New Year!

손재욱 (가정대 77)

ATLANTA | MIAMI | NEW BRUNSWICK | PHILADELPHIA

Master Planning
Architecture
Engineering
Consulting
Parking Studies
Financial Analysis
Restoration
Sustainability Services
Parking and Mixed-Use Design

PLANNING for CITIES and PEOPLE

Effective Parking Planning Sets the Stage for Success

필라델피아 본사 : 550 Township Line Roa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T. 484.342.0200 F. 484.342.0222

TimHaahs
TIMOTHY HAAGS ARCHITECTS

www.timhaahs.com



- WATER TREATMENT / STORAGE / AND DISTRIBUTION
- WASTEWATER COLLECTION / TREATMENT / RECYCLING
- FACILITY DESIGN (Civil, Structural, Mechanical, Electrical, and Instrumentation)
- REGULATORY CONSULTING / PERMITTING



Four California Offices:
 City of Industry, Sacramento,
 San Diego, and Walnut Creek
WWW.LEE-RO.COM

노명호 (공)
 M. Steve Ro, P.E.
 President/CEO